

## 어떤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는가?

: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현황과 부부관계의 질에 관한 탐색

### Which Couple Has More Shared Leisure Time?

: The Exploration of Shared Leisure Time and Marital Relationship in Korea

이 지 연(Jiyeon Lee)<sup>1</sup>, 그레이스 정(Grace H. Chung)<sup>2\*</sup>

<sup>1</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 <Abstract>

In recent years, leisure time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Korean society. Despite the growing interest,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ies that explored shared leisure time, especially among married couples. In this light, the present study examined variations in shared leisure time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ssociations between shared leisure time and quality of marital relationship. We used the third wave of the national data 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9,997 19-64 years old women). The study sample included 5,965 married women with no prior history of divorce. Results showed that Korean wives reported very little shared leisure time with their husbands. Given that the mean of the shared leisure time reported by employed wome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un-employed, we speculated that the time constraint may be one of the major barriers to having leisure time with one's spouse among Korean married couples. Married women in their 30's had the most frequent couple leisure time. The younger wives in their 20s had more cultural leisure time with their husbands, but sharing outdoor leisure time was not related to their age. The higher level of education for women was associated with greater shared active leisure time. However, visiting a husband's family often took place regardless of the wives' education level. After controlling for age, years of education, job status and annual family income, shared active leisure time (i.e., cultural activity and exercise) was posi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Visiting one's own family, however, was not considered a leisure activity for Korean wives. Rather, frequent family visits were related to lower marital satisfaction. Findings shed light on how leisure life of married women with spouses are intertwined with not only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 but also marital relationship in culturally unique ways.

---

▲주제어(Key words): 공유여가시간(shared leisure time),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hip),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 I. 연구의 필요성

주5일제 근무의 실시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여

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대중들의 높아진 관심과 맞물려서 여가를 즐기는 인구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S.

---

• 본 논문은 2014년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Grace H. Chu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82-2-880-1620, E-mail: gracechung@snu.ac.kr

Cha, 2012). 때문에 늘어난 여가시간과 이로부터 파생된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축적되어 오고 있다. 여가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주로 개인단위로 사용하는 여가시간 자체의 증가와 선용하는 여가의 종류 등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D. Kim & D. Hwang, 2012; W. Baek & E. Song, 2010; N. Hwang, 2014; E. Nam & Y. Choi, 2008). 반면에, 부부를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살펴보거나 여가시간의 활용양상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연구대상도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나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또, 부부관계와 여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상당수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남성과 차별되는 여성의 여가경험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젠더와 여가라는 연구들로 가족 내의 여가를 분석하는 데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S. Yoon & Y. Joung, 2003). 이처럼 부부의 여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가족생활주기의 출발점에 있으며 가족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연구에서 여전히 중요한 대상이다. 또, 부부는 정서적인 유대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일상의 삶을 함께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부여가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생활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즐기는 부부단위의 여가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일상적인 삶은 생활의 영역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유급 및 무급노동은 일의 영역을, 여가는 생활의 영역을 대표한다는 사실(J. Gershuny, 2000)을 생각해본다면,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삶의 절반을 구성하는 생활의 영역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할 때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은 부부관계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도구이자 틀로 활용될 수 있다.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기억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족여가는 가족 간에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K. Suh & C. Lee, 2011).

그리고 이는 부부여가와 부부관계에 있어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J. Jun(2014)의 시간분류에 따르면 여가활동은 의무시간(committed)이나 재생시간(generative)을 제외한 자유재량시간(discretionary)에 속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시간활용방법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여가활동을 통해서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부부관계를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부부의 여가활동을 통해 부부관계를 살펴볼 때에 한국 사회 맥락에서는 어떤 활동이 부부간의 여가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여가연구는 외국연구에서 사용하는 여가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여가는 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S. Clark, A. Harvey, & S. Shaw, 1990), 시간의 사용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R. Brislin & E. Kim, 2003) 여가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활동이 한국사회에서 여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가로 분류된다면 어떤 유형의 여가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연구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 때, 시력이나 청정과 맺고 있는 한국가족의 독특한 관계적 특징이나 역할 지위 등이 의무활동과 여가활동을 구분 짓는 사회문화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특성을 가진 부부가 여가활동을 함께하며 여가시간을 공유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부부공유여가시간과 부부관계의 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여가활동과 부부관계의 질 간의 연관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특성을 가진 부부가 여가시간을 공유하는가?
  -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현황은 어떠한가?
  - 2-2. 부부여가시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무엇인가?
2.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양과 부부관계의 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여가활동시간의 정의

여가란 무엇이며, 어떤 활동이 여가활동이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자들마다 개별연구에서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S. Cha, 2012).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가를 바라보면 일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여가라고 부를 수 있으며(J. Gershuny, 2000), 여가시간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유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면 시간이나 씻는 시간, 이동시간이나 돌봄시간 등을 일의 영역과 생활의 영역, 즉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중 어느 쪽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삶의 영역과 생활시간의 구분에 대한 재분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J. Jun(2014)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여가의 축으로 삶의 영역을 구성한 J. Gershuny(2000)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켜 의무시간(committed), 재생시간(regenerative)과 자유재량시간(discretionary)의 축으로 나누어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J. Jun(2014)의 시간분류에 근거하여 여가활동을 바라보면 여가활동은 자유재량시간에 속하는 활동으로써 개인이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시간활용방법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자유재량시간을 활용할 때, 즐거움과 같은 경험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를 여가라고 보는 견해는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J. Kelly & G. Godbey, 1992). 이러한 관점에서는 휴식(relaxation)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자기개발(personal development)이 여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구성요소로 자주 언급되며, 이때 놀이와 즐거움은 여가의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진다(H. Lee, 2001). 프랑스의 여가학자인 J. Dumazedier도 여가를 “개인이 자신의 직업적 의무와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하거나, 즐기거나, 자신의 지식을 늘리거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그의 능력을 배양하거나, 공동체 생활에서 자발적 참여를 늘리거나 하는 등등의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J. Dumazedier, 1960, as cited in I. Yoon & S. Kim, 2005).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으로 여가를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 2. 여가활동시간의 분류

#### 1) 여가의 주관성과 문화적 다양성

여가활동을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벗어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무엇이 의무이며, 무엇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S. Clark et al.(1990)은 어떤 사람에게든 여가로 여겨지는 활동이 다른 이에게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주관적 여가(subjective leisure)’의 개념에 주목하였다. 성별과 직업역할 혹은 가족의 상황과 같은 개인의 지위나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서 무엇이 여가활동으로 분류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가는 주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R. Brislin and E. Kim(2003)은 시간사용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가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시간과 관련된 개념들이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하였다. 문화에 따라 성역할이 다르고, 일과 여가의 균형점이 다르며, 가족의 구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S. Clark et al.(1990)과 R. Brislin and E. Kim(2003)의 이론을 결합하여 생각해보면, 여가는 주관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외연구에서 여가로 분류되는 활동들이 국내에서는 여가활동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가의 주관성과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방법과 범주를 살펴보면 국외와 국내의 연구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여가연구가 국외의 여가분류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였거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자료의 생활시간분류표 범주를 사용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

주 5일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삶의 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여 여가시간이 대폭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여가라고 볼 수 있는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은 그리 높지 않다. 특히 가족여가시간의 증가량은 매우 제한적이며, 증가분도 TV 등의 대중매체 이용이라는 소극적 여가활동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소극적인 의미의 가족여가활동은 의지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여가활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S. Cha, 2012; Y. Lee et al., 2012). 그러나 야외활동이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해야 하는 여가가 반드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들도 여가와 관련된 연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들 연구는 여가과몰입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가 원하는 사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너무 잦은 적극적 여가활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나올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S. Cha, 2012; J. Kim et al., 2009). 하지만 이때에도, 가족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 여가활동의 빈도가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많은 국내 여가 연구들에서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소극적 여가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가족여가활동을 요구하고 있다(Y. Lee et al., 2012; K. Lee, O. Kim, & H. Koo, 1995; W. Lim & Y. Park, 2001).

여가로 분류되는 활동은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적극적 여가활동과 소극적 여가활동이 적절히 포함된다. 국외 연구 중 M. Kalmijn과 W. Bernasco(200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접촉(친구·아는사람·이웃 방문, 부모님·형제·다른 가족 방문,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기), 여흥(술집·식당 방문, 영화·연극·콘서트 관람), 실외 여가(조식운동 연습, 조깅, 걷기, 등산, 낚시, 보트타기; 지역사회모임 참석, 휴가가기), 실내 여가(집에서 취미활동하기, TV보기, 독서, 음악감상)가 여가활동(leisure activity)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부부간의 동료애(companionship)를 측정할 때, 다른 측정도구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라고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여가활동이 구성된다. K. Lee et al.(1995)이 구성한 공유여가시간의 유형별 활동으로는 적극적 공유여가활동에는 취미, 운동, 여행, 스포츠관람, 친구·동료와의 만남, 관혼상제 실시 및 참가, 가족·친척 방문, 사회활동, 종교활동, 가족외식, 기타 오락 등의 활동이 포함되고, 소극적 공유여가활동에는 TV시청, 라디오 청취, 대화 및 잡담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Y. Lee et al.(2012)이 부부공유여가시간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9년에 실시한 <제3차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며, 이 자료에 포함된 여가활동으로는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의 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물품 구입, 기타 여가관련 행동이 있다. 여가에 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여가시간은 물론,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 역시 대부분 TV보기와 같은 소극적 여가 활동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 3. 부부공유여가시간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연령과 생애주기

연령은 부부관계뿐 아니라, 생애주기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볼 때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현상들과 가족 내 역동(dynamic)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성원의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라서 가족의 발달단계가 정해지고, 이는 가족의 삶에 일정한 궤적(trajectories)을 형성하며 가족의 역사(history)를 만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은 단순히 객관적인 숫자를 넘어서서 개인과 가족이 위치한 삶의 단계를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20대 부부는 가족주기에서 보았을 때, 가족을 형성하는 신흥기에 해당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신흥기는 전생애주기의 결혼만족도 패턴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결혼만족도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높은 결혼만족도는 부부관계를 반영하는 안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발생한 상대에 대한 환상(illusion)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의 결혼만족도는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덜 받고, 독립적인 요소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J. Kang, S. Shin, & H. Choi, 2001). 신흥초기의 부부여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바가 없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20대의 부부관계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20대의 부부여가공유시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부부관계의 다른 구성요소에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30대는 가족주기에서 보았을 때, 부모로의 전이기(transition to parenthood)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는 부모됨이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한국처럼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관계보다 우선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S. Lee, 1990). 부모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환이 어려워져(A. Rossi, 1968, as cited in S. Lee, 1990)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부만의 여가시간을 갖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Y. Lee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가족여가 혹은 배우자와의 여가 공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30대는 사회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문화를 주도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년기는 개인에게도 부부에게도 위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J. Song, 1996).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중년기를 세분화하여 그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다는 하나의 시기로 묶어서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나이를 함께 다루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에서는 중년기에 관한 연구들이 위와 같은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년기의 위기는 연구대상을 세분화하여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채로 중년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여 만들어낸 신화라는 주장도 있다. 중노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여가연구들은 지나치게 넓은 연령층을 하나로 묶어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이원체계에 초점을 두고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를 살펴보다는 개인의 여가와 삶에 대해 연구의 관심이 편중되어 있다(C. Kim & J. Lee, 2003; S. Moon, 2013; H. Won, S. Park, & E. Kim, 2012). 따라서 중년기의 부부는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부부의 역동 또한 연령대별로 다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생애주기는 이렇듯 개인과 가족이 처한 상황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반영하는 하나의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나 미취학 자녀 유무에 따라서 부부간 공유여가시간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이 달라지는지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 부부공유여가시간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전국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 2)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직업 및 소득은 사회계층과 상관성이 높은 인구사회학적 변수이다. 대체로 사회계층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계층이 높은 이들이 여가 활동을 위한 여유시간을 만들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심리적·물질적 자원을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적 자원에는 금전적인 측면과 더불어 여가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함께 포함한다. 특히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 관련된 형태의 여가, 예를 들면, 독서나 운동, 사회활동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극적 여가보다는 적극적 여가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S. Cha, 2012; I. Yoon & S. Kim, 2005). 대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으며, 개인의 높은 학력은 적극적 여가활동의 향유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Y. Han & S. Yoon, 2009; H. Lee, K. Lee, & O. Kim, 1999; K. Lee et al., 1995; W. Lim & Y. Park, 2001; S. Yoon & Y.

Joung, 2003; S. Yoon & J. Yoon, 2003).

그러나 Y. Lee et al.(2012)이 여성들의 가족공유여가시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일에는 중졸집단이, 주말에는 전문대 및 대졸집단이 배우자와 여가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학원 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은 배우자와의 여가시간공유와 학력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평일에는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정규직 노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배우자와 여가시간을 공유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전문대 및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은 평일에는 유급노동에 대다수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인해서 여가를 함께 할 수 없지만, 가족에 대한 가치를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주말을 활용해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학력이 낮은 집단은 정규직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여력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배우자와 적극적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반면에, 학력이 높은 집단은 유급노동시간이 길어져서 여유시간이 부족하고 시간부족감에 시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우자와 적극적 여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여가를 연구할 때에는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가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계층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가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내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족의 여가시간을 조사할 때에는 아내의 취업상태가 오히려 가족의 여가시간 공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부부가 직면하게 되는 일-가족 갈등 문제는 대부분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가족의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서 늘 생활시간의 부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M. Hart & M. Kelley, 2006). 또, 맞벌이를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노동을 훨씬 더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녀 간에 여가시간의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Y. Han & S. Yoon, 2009).

## 4. 부부공유여가시간과 부부관계의 질

부부가 함께 여가시간을 공유하는 것은 생활세계를 공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생활세계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상호간의 만족과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것은 부부가 서로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라

고 할 수 있다(C. Kim & J. Lee, 2003). 적극적으로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함께하는 시간은 부부간에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임으로써 결혼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G. Glorieux, J. Minnen, & T. van Tienoven, 2011). 또, 남편과 아내가 여가활동 및 야외활동을 함께하고, 사람들을 함께 만남으로 공동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가 비용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이 삶의 양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여가시간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M. Kalmijn & W. Bernasco, 2001). 이러한 여가활동을 통해 부부는 서로를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고, 공유한 경험을 기반으로 공동된 가치관을 갖게 되어 부부관계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C. Gager & L. Sanchez, 2003; M. Hill, 1988). 여가활동을 자녀나 친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여 준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W. Bryant & Y. Wang, 1990; L. White, 1983). 따라서 여가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면, 부부여가는 부부사이의 긍정적인 경험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2010년에 수집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3차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이하 KLoWF)자료를 활용하였다. KLoWF는 2006년부터 전국규모의 가구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2012년에 수집된 4차 자료가 2014년에 배포되었다. 이 패널은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한 9,086가구(도서지역 제외, 제주도 포함)를 대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가 이루어졌으며, 추출된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 9,997명이 원표본이다. KLoWF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 가족과 관련한 가치, 가족과정과 이벤트, 가족구조 등과 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수집된 3차 KLoWF 원자료

가운데 이혼한 경험이 없으며, 1차년도부터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된 표본은 5,965명의 패널조사자료이다. 재혼인 경우에는 현 배우자와의 결혼지속기간이 연령과 상관관계가 없을 확률이 매우 크고, 가족생애주기와 부부관계의 역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위와 같이 제한하였음을 밝힌다. 연구대상자(여성)의 연령은 23세에서 69세까지 분포해 있었고 평균연령은 46.59세( $SD=10.25$ )였다. 남편의 연령은 23세에서 81세까지 분포해 있었고, 평균연령은 49.92세( $SD=11.04$ )로 아내의 평균연령보다 약 3세가량 높았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30.84%, 고졸이 39.60%, 대졸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총가구소득은 0원에서부터 최대 약 4억2천 400만원에 이르고, 연간총가구소득의 평균은 약 3,737만원( $SD=2292.05$ )이었으며, 분석에는 자연로그를 취해서 사용하였다. 직업유무는 직업이 있는 사람(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이 아내의 경우 50.08%, 남편의 경우 76.80%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2.72%였다.

#### 2. 측정도구 및 변수의 조작방법

##### 1) 부부공유여가시간

KLoWF 3차년도 자료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에 대해 묻는 문항은 총 4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부부공유여가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활용하였다. “지난 한 달간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부가 같이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라는 질문 아래 “(1)부부가 같이 외출하여 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관람하기”, “(2)부부가 같이 산책, 조깅, 등산, 운동 등을 하기”, “(3)부부가 같이 시부모님이나 시댁형제들을 만나기”, “(4)부부가 같이 친정부모님이나 친정형제들을 만나기” 라는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문항 1번을 “문화여가활동”, 2번을 “실외여가활동”, 3번을 “시댁식구와의 교제”, 4번을 “친정식구와의 교제”라고 명명하였다.

선택지는 총 5개 보기로 구성되어 있고(①일주일에 2번 이상, ②일주일에 1번 정도, ③2주에 1번 정도, ④한달에 한번, ⑤한달에 한번도 안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는 응답에는 0값을 부여하고, 다른 보기들도 역코딩하여 숫자가 높을수록 공유여가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0-4점), ANOVA, ANCOVA, t-test를 실시할 때에 5점 리커트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여가활동의 평균점수는 문화여가활동이 .40, 실외여가활동은 .87, 시댁식구와의 교제가 .76, 친정식구와의 교제가 .62로 나타났다. 프로빗(probit)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는 응답에 0값을, 나머지 보기에는 1값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연령대(20대-60대), 아내의 교육수준(중졸이하-고졸-대졸이상), 아내의 취업여부(취업=1)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 부부여가공유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ANCOVA 분석에서는 아내연령과 남편연령, 아내의 교육년수와 남편의 교육년수, 로그를 취한 연간가구총소득을 연속변수로, 아내와 남편의 직업유무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남편과 함께 여가를 하는 기혼여성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프로빗(probit) 분석에서는 아내의 연령을 구간으로 나눈 뒤 40대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20대, 30대, 50대, 60대를 각각 더미변수로 투입하였고, 아내와 남편의 직업유무도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아내의 교육년수와 로그를 취한 연간가구총소득은 연속변수로 하여 모형에 포함시켰다. 조사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미취학 자녀유무라는 변수 또한 프로빗 모형에 포함시켰다.

## 3)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공유여가시간이 부부관계의 질과 상관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정도에 따른 부부관계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긍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결혼만족도를 사용하였다. KLoWF 3차년도 자료에서 결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현 남편과의 요즈음 결혼 생활에 대한 \_\_\_님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단문항으로 측정된다. 응답은 '매우 불행하다(1)'부터 '매우 행복하다(7)'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결혼만족도 평균점수는 4.71이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기술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연령대에 따라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양이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 아내의 각 연령대별로 4종류의 부부공유여가활동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한 뒤, 아내의 취업여부와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평균차이를 각각 t-test와 ANOVA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부부여가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프로빗(probi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3차년도의 결혼만족도, 아내의 연령과 교육년수, 아내의 직업유무, 남편의 직업유무, 연간가구소득(로그), 동거 미취학자녀 유무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프로빗 모형에서는 아내의 연령을 투입할 때, 연령대별로 더미변수를 만든 뒤 40대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사용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과 부부관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ANOVA 분석을 실시하여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정도에 따라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뒤,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통제되는 변수는 아내와 남편 각각의 연령과 교육년수 및 취업유무, 로그를 취한 연간가구총소득 및 2차년도 결혼만족도이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가족과의 교제시간과 결혼만족도의 비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결혼만족도를 제곱한 이차항을 투입한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ANCOVA 분석결과를 뒷받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현황

#### 1) 아내의 연령대별 부부공유여가시간 빈도

<Table 1>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모든 종류의 부부공유여가활동에 대해 한 달에 한 번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20대에서만 남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시댁식구들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49%, 남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친정식구들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7%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문화여가활동(40.28%)과 실외여가활동(53.86%)을 한 달 안에 남편과 함께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 2)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라 부부공유여가시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Table 1. Proportion of shared leisure time by wife's age

	All (n=5965)	20s (n=98)	30s (n=1708)	40s (n=1855)	50s (n=1436)	60s (n=868)
Cultural leisure						
Less than once within a month	71.77%	61.22%	59.72%	67.44%	81.55%	89.75%
Once within a month	20.34%	27.55%	27.87%	23.45%	14.35%	7.95%
Once within two weeks	4.81%	6.12%	6.97%	6.04%	2.58%	1.50%
Once within a week	2.36%	4.08%	4.51%	2.21%	0.97%	0.58%
More than twice within a week	0.72%	1.02%	0.94%	0.86%	0.56%	0.23%
Outdoor leisure						
Less than once within a month	56.09%	54.08%	46.14%	51.00%	63.86%	73.96%
Once within a month	19.85%	20.41%	24.06%	23.13%	15.95%	10.94%
Once within two weeks	9.94%	9.18%	13.06%	11.91%	7.03%	4.49%
Once within a week	9.00%	10.20%	11.83%	8.63%	8.43%	5.07%
More than twice within a week	5.11%	6.12%	4.92%	5.34%	4.74%	5.53%
Visiting husband's family						
Less than once within a month	54.86%	27.66%	37.13%	52.24%	67.29%	80.23%
Once within a month	28.14%	41.49%	36.71%	30.77%	21.78%	13.39%
Once within two weeks	7.65%	9.57%	12.57%	7.51%	4.24%	3.13%
Once within a week	4.65%	11.70%	7.09%	4.71%	3.05%	1.25%
More than twice within a week	4.70%	9.57%	6.50%	4.76%	3.64%	2.00%
Visiting own family						
Less than once within a month	60.77%	40.63%	43.36%	59.82%	71.63%	83.05%
Once within a month	26.37%	41.67%	33.83%	28.59%	21.01%	13.14%
Once within two weeks	6.18%	6.25%	11.43%	4.94%	3.94%	1.84%
Once within a week	3.92%	7.29%	6.64%	4.06%	1.97%	0.86%
More than twice within a week	2.76%	4.17%	4.74%	2.58%	1.46%	1.11%

Table 2. Mean of shared leisure time by wife's work status (t-test)

	employed	un -employed	t-value		employed	un -employed	t-value
Cultural leisure				Visiting husband's family			
All	.34	.46	6.49***	All	.73	.80	2.43*
20s	.64	.53	-.56	20s	1.04	1.47	1.62
30s	.60	.59	-.23	30s	1.07	1.11	.65
40s	.39	.53	3.87***	40s	.79	.79	-.12
50s	.18	.35	5.00***	50s	.54	.53	-.19
60s	.12	.15	1.13	60s	.39	.22	-3.20**
Outdoor leisure				Visiting own family			
All	.68	1.06	12.34***	All	.57	.66	3.72***
20s	1.07	.89	-.60	20s	.93	.93	.01
30s	.95	1.12	2.86**	30s	1.02	.91	-1.86
40s	.81	1.10	5.19***	40s	.58	.65	1.59
50s	.50	1.09	8.99***	50s	.35	.49	3.32**
60s	.33	.84	6.65***	60s	.27	.20	-1.60

\*  $p < .05$ , \*\*  $p < .005$ , \*\*\*  $p < .001$ 

아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아내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모든 유형의 부부공유활동에서 아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비해 부부공유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서는 모든 유형의 부부공유활동에서 부부공유여가시간에 유

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0대에서는 실외여가활동에서만 아내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t = 2.86$ ,  $p < .005$ ). 40대는 문화여가활동( $t = 3.87$ ,  $p < .001$ )과 실외여가활동( $t = 5.19$ ,  $p < .001$ )에서, 50대는 문화여가활동( $t = 5.00$ ,  $p < .001$ )과 실외여가활동( $t = 8.99$ ,  $p < .001$ ), 친정식구와의 교체( $t = 3.32$ ,  $p < .005$ )에서 아내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60대는 실외여가활동( $t = 6.65$ ,  $p < .001$ )에서



는 아내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댁식구와의 교체활동( $t = -3.20, p < .005$ )에서는 아내가 직업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이 더 많다는 예외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 3) 아내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

<Table 3>을 보면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학력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집단 구분도 모두 학력의 순서대로 나타나서, 학력이 낮을수록 부부공유여가시간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공유여가시간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모든 유형의 활동에서 학력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여가활동과 실외여가활동에서는 2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학력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시댁식구와의 교체에서는 30대에서만 학력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에서 집단의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친정식구와의 교체에서는 20대와 60대에서 학력에 따른 부부공유여가시간의 평균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부공유여가시간과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프로빗 모형)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표본 5,965명 중 남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상 문화여가활동을 한 아내는 1,684명으로 전체의 28.23%를 차지했고, 실외여가활동을 한 사람은 2,619명으로 전체의 43.91%를 차지했다. 남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식구와의 교체활동을 한 아내는 응답자 5,700명 중 2,573명으로 45.14%였으며, 친정식구와의 교체활동의 경우에는 응답자 5,791명 중 2,272명으로 43.90%인 것으로 나타났다.

### 1)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여가활동시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가 문화여가활동을 함께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에 제시한바와 같이 결혼만족도, 연령, 아내교육년수, 아내취업유무, 남편취업유무, 연간가구총소득, 동거 미취학자녀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4.22% 높아졌다(Coef. = .13,  $p < .001$ ,  $dF/dx = .0422$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0대에 비해서 20대와 30대는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높고, 60대는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낮아지며, 50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0대는 40대에 비해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13.29% 증가하고(Coef. = .38,  $p < .005$ ,  $dF/dx = .1329$ ), 30대는 40대에 비해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7.66% 증가한다(Coef. = .23,  $p < .001$ ,  $dF/dx = .0766$ ). 반면에, 60대는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40대

Table 3. Mean of shared leisure time by wife's education level (ANOVA)

	Less than high school	high school	More than high school	F값		Less than high school	high school	More than high school	F값
Cultural leisure					Visiting husband's family				
All	.12 <sup>a</sup>	.40 <sup>b</sup>	.69 <sup>c</sup>	274.69 <sup>***</sup>	All	.50 <sup>a</sup>	.78 <sup>b</sup>	1.00 <sup>c</sup>	97.66 <sup>***</sup>
20s	.00	.53	.67	1.70	20s	.50	1.40	1.40	1.43
30s	.13 <sup>a</sup>	.46 <sup>ab</sup>	.70 <sup>c</sup>	17.87 <sup>***</sup>	30s	1.50 <sup>a</sup>	1.01 <sup>a</sup>	1.15 <sup>a</sup>	3.82 <sup>*</sup>
40s	.10 <sup>a</sup>	.39 <sup>b</sup>	.68 <sup>c</sup>	55.02 <sup>***</sup>	40s	.82	.74	.86	2.17
50s	.15 <sup>a</sup>	.33 <sup>b</sup>	.67 <sup>c</sup>	43.62 <sup>***</sup>	50s	.56	.50	.55	.52
60s	.10 <sup>a</sup>	.24 <sup>a</sup>	.54 <sup>b</sup>	19.36 <sup>***</sup>	60s	.30	.33	.48	.83
Outdoor leisure					Visiting own family				
All	.51 <sup>a</sup>	.86 <sup>b</sup>	1.26 <sup>c</sup>	185.41 <sup>***</sup>	All	.31 <sup>a</sup>	.65 <sup>b</sup>	.88 <sup>c</sup>	159.03 <sup>***</sup>
20s	.83	.69	1.23	2.14	20s	.60	.86	1.05	.60
30s	.19 <sup>a</sup>	.82 <sup>b</sup>	1.16 <sup>b</sup>	32.07 <sup>***</sup>	30s	.50 <sup>a</sup>	.89 <sup>a</sup>	1.02 <sup>a</sup>	4.07 <sup>*</sup>
40s	.53 <sup>a</sup>	.84 <sup>b</sup>	1.23 <sup>c</sup>	35.12 <sup>***</sup>	40s	.45 <sup>a</sup>	.57 <sup>a</sup>	.73 <sup>b</sup>	9.33 <sup>***</sup>
50s	.54 <sup>a</sup>	.96 <sup>b</sup>	1.48 <sup>c</sup>	41.79 <sup>***</sup>	50s	.36 <sup>a</sup>	.47 <sup>ab</sup>	.54 <sup>b</sup>	4.72 <sup>*</sup>
60s	.46 <sup>a</sup>	1.06 <sup>b</sup>	1.40 <sup>b</sup>	23.00 <sup>***</sup>	60s	.22	.33	.41	2.43

\*  $p < .05$ , \*\*  $p < .005$ , \*\*\*  $p < .001$   
<sup>abc</sup>scheffé's method

에 비해 5.64% 감소한다(Coef. = -.19,  $p < .05$ ,  $dF/dx = -.0564$ ).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부부가 문화여가활동시간을 공유할 확률이 3.21% 증가한다(Coef. = .10,  $p < .001$ ,  $dF/dx = .0321$ ). 아내가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5.96% 감소하였다(Coef. = -.19,  $p < .001$ ,  $dF/dx = -.0596$ ). 남편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남편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이 없는 경우에 비해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2.53% 감소했다(Coef. = -.08,  $p < .001$ ,  $dF/dx = -.0253$ ). 소득의 경우에는 연간가구총소득이 1% 증가할 때,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3.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Coef. = .11,  $p < .001$ ,  $dF/dx = .0357$ ), 소득이 높은 부부가 문화여가활동을 더 자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7.74% 낮아졌다(Coef. = -.25,  $p < .001$ ,  $dF/dx = -.0774$ ). 즉, 미취학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부가 함께하는 실외여가활동시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가 실외여가활동을 함께 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에 제시한바와 같이 결혼만족도, 아내교육년수, 아내취업유무, 남편취업유무, 연간가구총소득, 동거 미취학자녀유무이며, 연령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결혼만족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남편과 함께

실외여가활동을 수행할 확률이 8.38% 증가하였다(Coef. = .21,  $p < .001$ ,  $dF/dx = .0838$ ). 다음으로,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실외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부부가 같이 실외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4.04% 증가했다(Coef. = .10,  $p < .001$ ,  $dF/dx = .0404$ ).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실외여가를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즉, 아내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아내가 일을 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실외여가활동을 함께 할 확률이 14.35% 감소하였다(Coef. = -.37,  $p < .001$ ,  $dF/dx = -.1435$ ). 남편이 일을 하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4.17% 감소하였다(Coef. = -.11,  $p < .05$ ,  $dF/dx = -.0417$ ). 가구소득이 높은 부부는 함께 실외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연간가구총소득이 1% 증가할 때, 부부가 함께 실외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1.9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05,  $p < .005$ ,  $dF/dx = .0198$ ). 동거 미취학자녀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부가 함께 실외여가활동을 할 확률이 7.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Coef. = -.19,  $p < .001$ ,  $dF/dx = -.0749$ ), 미취학자녀와 함께 살면 부부공유 실외여가활동의 기회가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부가 함께하는 시댁식구와의 교체시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가 함께 시댁식구와의 교체시간을 갖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에 제시한바와 같이 결혼만족도, 연령, 아내교육년수, 연간가구총소득, 동거 미취학자녀유무이며, 아내나 남편의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결혼만족도가 한 단

Table 4. Predictors of shared leisure time (probit model)

	Cultural leisure			Outdoor leisure			Visiting husband's family			Visiting own family		
	Coef.	Robust marginal S.E	effects	Coef.	Robust marginal S.E	effects	Coef.	Robust marginal S.E	effects	Coef.	Robust marginal S.E	effects
marital satisfaction at Wave3 age period (reference=40s)	.13***	.02	.0422	.21***	.02	.0838	.12***	.02	.0486	.14***	.02	.0534
20s	.38**	.14	.1329	.00	.14	.0004	.50**	.15	.1980	.37*	.14	.1448
30s	.23***	.05	.0766	.05	.05	.0181	.22***	.05	.0889	.27***	.05	.1030
50s	-.08	.05	-.0254	.04	.05	.0166	-.23***	.05	-.0895	-.12*	.05	-.0440
60s	-.19*	.08	-.0564	-.04	.07	-.0167	-.52***	.07	-.1959	-.37***	.07	-.1322
years of education	.10***	.01	.0321	.10***	.01	.0404	.03***	.01	.0133	.05***	.01	.0181
wife's work status	-.19***	.04	-.0596	-.37***	.04	-.1435	-.05	.04	-.0240	-.05	.04	-.0208
husband's work status	-.08***	.05	-.0253	-.11*	.04	-.0417	.06	.04	.0223	-.05	.04	-.0187
total annual income (logged)	.11***	.03	.0357	.05**	.02	.0198	.04*	.02	.0158	.04*	.02	.0164
cohabiting preschool children	-.25***	.05	-.0774	-.19***	.05	-.0749	.19***	.05	.0763	.16**	.05	.0627
Pseudo R <sup>2</sup>	0.1104			0.1106			0.0882			0.0851		
Wald chi-square	608.31***			797.24***			634.22***			591.68***		
Log Pseudolikelihood	-3114.55			-3588.02			-3530.7806			-3498.8621		

\* $p < .05$ , \*\* $p < .005$ , \*\*\* $p < .001$

위 증가하면 남편과 함께 시댁식구를 만날 확률은 4.86% 증가하였다(Coef. = .12,  $p < .001$ ,  $dF/dx = .0486$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0대에 비해서 20대와 30대는 부부가 함께 시댁식구와 교체할 확률이 높고, 50대와 60대는 확률이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40대에 비해 20대는 남편과 함께 시댁식구를 만날 확률이 19.80% 증가하고(Coef. = .50,  $p < .005$ ,  $dF/dx = .1980$ ), 30대는 40대에 비해 남편과 함께 시댁식구를 만날 확률이 8.89% 증가한다(Coef. = .22,  $p < .001$ ,  $dF/dx = .0889$ ). 반면에, 50대는 남편과 함께 시댁식구를 만날 확률이 40대에 비해 8.95% 감소하고(Coef. = -.23,  $p < .001$ ,  $dF/dx = -.0895$ ), 60대의 경우에는 40대에 비해 19.59% 감소한다(Coef. = -.52,  $p < .001$ ,  $dF/dx = -.1959$ ).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시댁식구와 교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그 확률이 1.33% 증가한다(Coef. = .03,  $p < .001$ ,  $dF/dx = .0133$ ). 소득의 경우에는 연간가구총소득이 1% 증가할 때, 부부가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식구를 만날 확률은 1.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04,  $p < .05$ ,  $dF/dx = .0158$ ). 시댁식구와의 교제의 경우에는 문화여가나 실외여가와는 달리 동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발생 확률이 7.63% 높아졌다(Coef. = .19,  $p < .001$ ,  $dF/dx = .0763$ ). 즉, 미취학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시댁식구를 방문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부부가 함께하는 친정식구와의 교체시간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에 제시한바와 같이 부부가 함께 친정식구와의 교체시간을 갖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만족도, 연령, 아내교육년수, 연간가구총소득, 동거 미취학자녀유무이며, 아내나 남편의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가 한 단위 증가하면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날 확률은 5.34% 증가하였다(Coef. = .14,  $p < .001$ ,  $dF/dx = .0534$ ).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40대에 비해서

20대와 30대는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와 교체할 확률이 높고, 50대와 60대는 그 확률이 낮아졌다. 40대에 비해 20대는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날 확률이 14.48% 증가하고(Coef. = .37,  $p < .05$ ,  $dF/dx = .1448$ ), 30대는 40대에 비해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날 확률이 10.30% 증가한다(Coef. = .27,  $p < .001$ ,  $dF/dx = .1030$ ). 반면에, 50대는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날 확률이 40대에 비해 4.40% 감소하고(Coef. = -.12,  $p < .05$ ,  $dF/dx = -.0440$ ), 60대의 경우에는 40대에 비해 13.22% 감소한다(Coef. = -.37,  $p < .001$ ,  $dF/dx = -.1322$ ).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와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내의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그 확률이 1.81% 증가한다(Coef. = .05,  $p < .001$ ,  $dF/dx = .0181$ ). 소득의 경우에는 연간가구총소득이 1% 증가할 때,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날 확률은 1.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04,  $p < .05$ ,  $dF/dx = .0164$ ). 친정식구와의 교제는 문화여가나 실외여가와는 달리 동거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발생 확률이 6.27% 높아졌다(Coef. = .16,  $p < .005$ ,  $dF/dx = .0627$ ). 즉, 미취학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친정식구를 방문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부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과 부부관계의 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부공유여가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평균을 ANOVA를 통해 비교하였다(table not shown). 그 결과, 문화여가활동( $F = 42.36$ ,  $p < .001$ ), 실외여가활동( $F = 93.67$ ,  $p < .001$ ), 시댁식구와의 교체( $F = 32.59$ ,  $p < .001$ ), 친정식구와의 교체( $F = 46.87$ ,  $p < .001$ ) 모두 공유빈도에 따라 결혼만족도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ANC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에 제시한 것처럼 모든 부부공유여가활동의 빈도에 대해서 결혼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

Table 5. Estimated mean of marital satisfaction by shared leisure time (ANCOVA)

	Less than once within a month	Once within a month	Once within two weeks	Once within a week	More than twice within a week	F-value
Cultural leisure	4.87(.03)	5.02(.04)	5.15(.06)	5.15(.09)	5.26(.15)	12.37***
Outdoor leisure	4.76(.03)	4.94(.04)	5.09(.05)	5.18(.05)	5.27(.06)	41.01***
Visiting husband's family	4.86(.03)	4.97(.04)	5.06(.05)	5.01(.06)	5.02(.07)	7.24***
Visiting own family	4.85(.03)	4.97(.04)	5.18(.06)	5.17(.07)	5.13(.08)	16.29***

\*\*\*  $p < .001$

Note: Controlled variables: age (wife and husband), years of education (wife and husband), job status (wife and husband), total annual income (logged), marital satisfaction at Wave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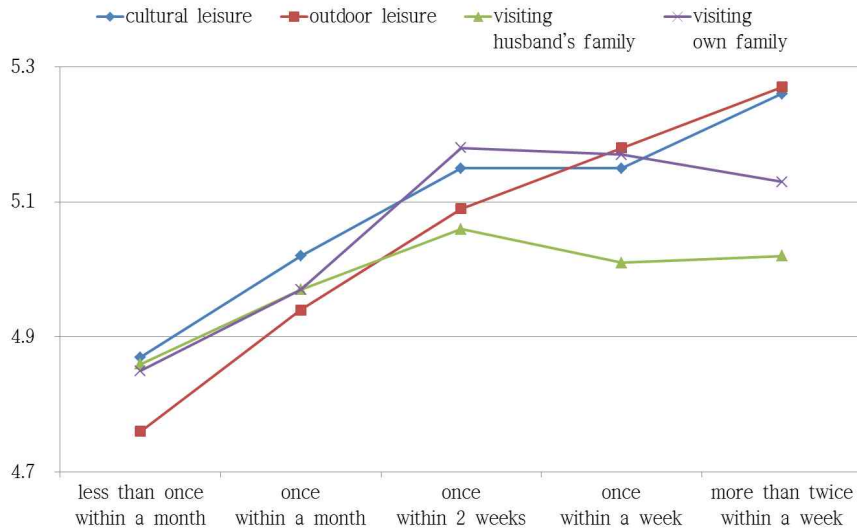


Figure 1. Estimated mean of marital satisfaction by shared leisure time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정된 평균값을 통해 부부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Table 5>와 <Figure 1>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여가활동과 실외여가활동은 부부가 함께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의 평균도 높아지는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평균의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문화여가활동  $F=12.37, p<.001$ ; 실외여가활동  $F=41.01, p<.001$ ). 그러나 시댁식구나 친정식구와의 교체활동의 경우에는 공유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했으나(시댁식구와의 만남  $F=7.24, p<.001$ ; 친정식구와의 만남  $F=16.29, p<.001$ ), 그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시댁식구와의 교제의 경우 추정된 결혼만족도 평균은 한 달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집단이 4.86점( $SE=.03$ )으로 가장 낮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집단은 4.97점( $SE=.04$ )이었다. 추정된 결혼만족도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은 2주에 한 번 만나는 집단으로 5.06점( $SE=.05$ )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집단은 5.01점( $SE=.06$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만나는 집단은 5.02점( $SE=.07$ )로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으로서 시댁식구와 만나는 빈도는 가장 잦았으나, 결혼만족도는 오히려 2주에 한 번 만나는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정식구와의 교체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도 남편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나지 않는 집단의 추정된 결혼만족도 평균이 4.85점( $SE=.03$ )으로 가장 낮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집단의 평균이 4.97점( $SE=.04$ )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2주에 한 번 만나는 집단의 결혼만족도 평균이 5.18점( $SE=.06$ )으로 가장 높았다. 남편

과 함께 친정식구를 만나는 빈도가 2주에 한 번보다 잦아지면 결혼만족도는 다시 낮아져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집단은 5.17점( $SE=.07$ ),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만나는 집단은 5.13점( $SE=.0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식구와의 교체나 친정식구와의 교체에서 부부공유여가시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평균차이는 유의미했다.

종속변수(결혼만족도)와 통제변수(인구사회학적 변인)를 동일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여가시간을 제공한 2차항을 투입하여 여가활동별로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ANCOVA 분석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table not shown). 즉, 결혼만족도에 대해서 문화여가시간이나 실외여가시간은 각각 1차항만 유의하였고( $\beta=.12, p<.001$ ;  $\beta=.23, p<.001$ ), 2차항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시댁식구나 친정식구와의 교체활동의 경우에는 각각 1차항이 유의하였고( $\beta=.15, p<.001$ ;  $\beta=.16, p<.001$ ), 2차항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09, p<.05$ ;  $\beta=-.07, p<.05$ ). 이는 시댁식구 및 친정식구와의 교체와 아내의 결혼만족도 사이는 선형이 아니며,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하는 여가활동시간의 현황을 밝히고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며,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시간과 결혼만족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 부부여가활동의 특징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

다. 부부공유여가시간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가족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부관계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도 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적이거나 필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울여 즐거움을 추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여가활동을 부부가 함께하는 양태를 살펴보면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관계의 질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한국 부부들의 절반가량이 문화생활이나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지난 한 달 동안 부부가 함께 수행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20대에서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이 결과는 우리나라 부부여가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주5일제의 시행으로 증가한 여가시간의 대부분이 TV보기와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 때문이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같은 방향성을 보인다(S. Cha, 2012; Y. Han & S. Yoon, 2009; Y. Lee et al., 2012;). 최근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담론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그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의 비중은 훨씬 낮은 것이 우리나라 여가생활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부부공유여가활동의 연령별 특징도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이다. 먼저 30대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지난 한 달간 남편과 함께 문화여가활동과 운동여가활동을 수행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로서의 전이기에 놓인 30대가 부부간에 함께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을 것이라는 선행연구결과(Y. Lee et al., 2012)와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30대 부부가 문화생활이나 운동과 같은 여가활동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해보자면, 사회적인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30대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향유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20대는 모든 부부공유활동시간에서 아내의 취업여부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20대에 해당하는 신혼기에는 부부관계가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독립적이며(J. Kang, S. Shin, & H. Choi, 2001), 결혼만족도도 부부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과는 별개로 상대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J. Boden, F. Fisher, & S. Niehuis, 2010).

본 연구에서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을 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여가의 내용 자체가 젊은 층에게 특성화되어 있는 여가유형이며 젊은 층이 문화여가를 소비하는 주된 세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걷기나 산책, 등산과 같이 운동의 성격을 띠는 활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실외여가활동의 경우는 연령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구체적인 운동의 종류는 연령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년기 이상의 부부들이 함께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는 활동을 주된 여가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아내와 남편의 취업유무는 부부가 함께하는 문화여가와 실외여가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여가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가시간의 부족은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부족과 연결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내나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이나 실외여가활동을 할 기회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적극적 여가의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유급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M. Hart & M. Kelley, 2006). 우리나라의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보이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여가시간의 부족은 여전히 적극적 여가활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됨을 알 수 있다. 동거하는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활동이나 실외여가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도 실질적인 여가시간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시댁식구와의 교체나 친정식구와의 교체는 문화 및 실외여가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내와 남편의 취업유무가 시댁식구와의 교체나 친정식구와의 교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하는 미취학자녀가 있을 때에는 문화여가나 실외여가활동과는 반대로 시댁식구와의 교체나 친정식구와의 교체가 오히려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정교하게 파악하여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동거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원가족과의 교체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주는 한국사회와 한국가족의 특징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여가활동과 운동여가활동은 아내의 교육수준이 높

을수록 부부가 함께 누릴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학력 자체가 높은 사회적 계층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S. Cha, 2012; I. Yoon & S. Kim, 2005).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부가 함께 여가생활을 할 확률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동시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가 공유하는 적극적 여가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시간을 들여 의지적으로 부부가 함께 문화여가와 실외여가활동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아내의 교육수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아내의 교육수준과 시댁식구와의 교제활동과의 관계이다. 분석 결과, 전 연령층에서 아내의 교육수준별로 시댁식구와의 교제시간 평균이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와 한국가족 내에서 시댁식구와의 교제는 교육수준에 따른 아내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며느리로서 어느 정도 의무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일이 아닌지 유추해볼 수 있게 한다.

부부가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의 빈도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연령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전년도 결혼만족도를 통제했을 때에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동별로 결혼만족도의 변화양상이 다를 수 있다. 문화여가활동이나 실외여가활동은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도 함께 높아지는 반면에, 시댁식구나 친정식구를 만나는 활동은 2주에 한 번 수행할 때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고, 그 이상 자주 만나면 결혼만족도가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운동 등을 함께하는 것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인 것으로 보이나, 원가족이나 친척들을 부부가 함께 만나는 활동의 경우에는 너무 잦으면 오히려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외국과는 달리(M. Kalmijn & W. Bernasco, 2001) 한국에서는 시댁식구나 친정식구들과의 교제가 부부에게 언제나 여가활동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서 부부여가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사회에서 양가의 친척들을 만나는 활동은 여가활동이라기보다는 더 큰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으로 어느 정도의 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어린 자녀의 존재는 친정이나 시댁식구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문화여가나 실외여가 등의 적극적 여가는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지만, 노동시간이나 어린자녀의 양육으로 인한 시간부족이 부부가 함께 적극적 여가를 즐기는 데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또, 교육수준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부가 함께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에서 여가의 종류와 경험이 계층화되어 있다는 기존연구(I. Yoon & S. Kim, 2005)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응답자가 모두 여성인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부여가에 대한 아내의 응답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이기는 하지만, 부부관계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응답만으로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부공유여가시간과 부부관계에 대한 부부의 응답이 모두 포함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상호적인 부부관계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부부공유여가시간 질문에 대한 선택지 구성에 제한점이 있다. KLoWF자료는 '1주일에 2번', '한달에 1번'처럼 대략적인 빈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일지자료와는 달리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에 대한 여러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 하는 여가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 내에서 부부공유여가시간의 양태와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3차 KLoWF자료가 수집된 2010년과 전면토요휴무가 실시된 2011년 7월 1일 간에는 시간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4차 KLoWF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공유여가시간에 관한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부부공유여가활동과 부부관계의 질의 관계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밝히기가 어려워 역인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함을 밝힌다.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과 생활세계의 균형이 강조되고, 사람들의 가치가 생활세계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부부가 공유하는 여가시간의 유형이나 양을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어떠한 특성이 부부가 함께 여가를 보내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부부관계 내에

서 관계의 질과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라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Baek, W. C., & Song, E. I.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nd leisure activities specialization on working women.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4*(4), 137-146.
- Boden, J. S., Fisher, J. L., & Niehuis, S. (2010). Predicting marital adjustment from young adults' initial levels and changes in emotional intimacy over time: A 2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3), 121-134.
- Brislin, R. W., & Kim, E. S. (2003). Cultural diversity in people's understanding and uses of time.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2*(3), 363-382.
- Bryant, W. K., & Wang, Y. (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Cha, S. E. (2012). Dynamics in weekend leisure: evidence from 2009 Korean time diary data. *Journal of Leisure Studies, 9*(3), 61-90.
- Clark, S. M., Harvey, A. S., & Harvey, Shaw, S. M. (1990). Time use and leisure: Subjective and objective aspec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3*(4), 337-352.
- Dumazedier, J. (1960). Current problems of sociology of leisur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21*, 522-531.
- Gager, C. T. & Sanchez, L. (2003). Two as one? couples perceptions of time spent together, marital quality, and the risk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Issues, 24*(1), 21-50.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lorieux, L., Minnen, J., & van Tienoven, T. P. (2011). Spouse "Together Time": Quality time within the household.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281-287.
- Han, Y.-S., & Yoon, S. Y. (2009). The analysis of leisure time use of urban dual-earn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2), 81-95.
- Hart, M. S., & Kelley, M. L. (2006). Fathers' and mothers' work and family issues as related to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of children attending day care. *Journal of Family Issues, 27*(2), 252-270.
-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A multidisciplinary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Hwang, N. (2014). The categorization of leisure activities for older people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37-69.
- Jun, J. (2014). *Balance beyond work life: An empirical study of older people's time use in the UK*. Department of Sociology. Oxford, UK: University of Oxford.
- Kalmijn, M., & Bernasco, W. (2001). Joint and separated lifestyles in coupl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39-654.
- Kang, J. K., Shin, S. J., & Choi, H. K. (2001). Changing patterns of marital love constructs among married men and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5), 51-66.
- Kelly, J. R., & Godbey, G. (1992). *The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 Kim, C.-W., & Lee, J.-J. (2003). Leisure and quality of life: Focused on middle-aged couple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2), 1-10.
- Kim, D. J., & Hwang, D. U. (2012).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satisfaction and self realization according to type of life style. *Kor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7*(2), 39-60.
- Kim, J., Go, Y., Kim, Y., & Hur, T. (2009). The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atisfaction on the relation between preoccupation with leisure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Studies, 6*(3), 157-177.
- Lee, H. (2001). Influence of five-day workweek on leisure lifestyle and tourism industry.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13*, 31-57.
- Lee, H. A., Lee, K. Y., & Kim, O. S. (1999). A study on leisure time leisure cost and leisure satisfaction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7*(2), 137-155.
- Lee, K. Y., Kim, O. S., & Koo, H. R. (1995). Shared leisure time with spouse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33(3), 113-126.
- Lee, S. H. (1990). Changes of marital relationship by transition to parenthood. *Gajokhaknonjip*, 2, 1-27.
- Lee, Y.-S., Kim, O.-S., Lee, K.-Y., Cho, H.-K. Lee, S.-M., Kim, H.-N., & Han, Y.-S. (2012). Shared leisure time with couples, preschool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and their determinant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199-227.
- Lim, W.-T., & Park, Y.-B. (2001). The analysis of time spare time in the case of couples living in a city and its causes.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10(1), 93-101.
- Moon, S. J. (2013). The middle-aged women's relationship with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emotions: Do leisure experiences have a psychological buffering effect?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3), 105-128.
- Nam, E. Y., & Choi, Y. J. (2008).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the leisure activities in Korea: Based on types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57-84.
- Rossi, A. S. (1968).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 26-39.
- Song, J. A. (1996).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the mid - life crisis among the Korean urban coupl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4(1), 79-92.
- Suh, K. B., & Lee, C. W. (2011).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Leisure satisfaction for married coupl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5(3), 53-66.
- White, L. K. (1983). Determinants of spousal interaction: Marital structure or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3), 511-519.
- Won, H. J., Park, S. H., & Kim, E. J. (2012).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functioning, social support,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contemporary Korean elderly. *Journal of Leisure Studies*, 10(1), 123-142.
- Yoon, I.-J., & Kim, S.-W. (2005). Social group differences and inequality in leisure activities. *Social Science Studies*, 13(2), 162-202.
- Yoon, S. Y., & Joung, Y. H. (2003). A study on family leisure time use of school age familie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1), 79-95.
- Yoon, S. Y., & Yoon, J. Y. (2003). A study on activities and the nature of family leisure. *Journal of Leisure Studies*, 1(2), 11-31.

Received: January 9, 2015

Revised: March 13, 2015

Accepted: March 15, 2015